

소셜미디어와 속의민주주의의 가능성

이 상 신 | 송실대학교

머츠(Mutz 2006)는 속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머츠의 논의가 갖는 두 측면을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검증했다. 첫째, 머츠가 주장한 것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의 속의 수준 또한 네트워크 교차성이 커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다. 즉,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다른 견해에 자신을 노출시킬 확률이 높을수록 속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둘째, 네트워크 교차성이 클수록 정치참여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가설 또한 검증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교차성이 속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머츠의 주장과는 달리 네트워크 교차성이 오히려 온라인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음도 발견되었다.

주제어: SNS 효능감, 소셜미디어, 속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교차성, 동종선호, 온라인 정치참여

I. 문제제기

인터넷의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빨랐던 한국에서도 인터넷이 정치과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초기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자체의 성격이 주된 연구의 관심 대상이었다. 즉, 정보의 양방향성이나 즉각적인 정보전달 능력, 그리고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와 달리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생산자가 되는 웹 2.0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된 분석대상이었다(송경재 2007; 2009; 윤성이 2003; 정연정 2004; Grossman 1995; Negroponte 1995; Rheingold 2003). 그러나 2000년 후반

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 최근의 카카오톡 같은 이른바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맺는 관계 혹은 네트워크의 형태와 특징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오미영 2011; 이상신 2014; 이원태 외 2011; 최명균 외 2013; 장덕진 2011; 조성대 2013; 한규섭 외 2013; Gruz and Roy 2014; Halberstam and Knight 2014; Hampton et al. 2014; Swigger 2013; Vitak et al. 2011).

이렇게 최근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와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은 1940년대 처음으로 선거 및 미디어의 정치행태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주도했던 콜롬비아 학파의 접근 방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40년대에 시작된 콜롬비아 학파의 연구(Berelson et al. 1954; Katz and Lazarsfeld 1955; Lazarsfeld et al. 1968)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보다는 유권자들이 속해있는 사회집단과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투표 결정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징 및 그 속에서의 정치행태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가 숙의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적 숙의와 온라인 정치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고 그 영향력의 이유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민주국가의 시민에게는 크게 두 가지 덕목이 요구된다. 첫째, 시민들은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자세로 여러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 즉 숙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은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선거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머츠(Mutz 2002a; 2002b; 2006; Mutz and Mondak 2006)는 이 두 가지 덕목 — 숙의와 참여 —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가 있음을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보여준 바 있다.

머츠는 이 딜레마를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사이의 갈등이라고 파악한다. 숙의의 덕성을 가진 사람들, 즉 스스로를 이견(異見)에 노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합리적 태도로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발히 정치에 참여할 때만이 사회의 극단적 목소리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서의 정치행태를 보면 이러한 숙의

의 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반대로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속의 능력 대신 편향되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경향이 있다.

머츠는 교차적 네트워크(cross-cutting network)의 성격에서 이 속의와 참여 사이의 딜레마의 원인을 찾는다. 이는 콜롬비아 학파에서 주장한 교차압력(cross-pressured) 집단의 양가적 태도(ambivalent attitude)와도 상통하는 내용이다(Lazarsfeld et al. 1968, 56). 콜롬비아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서로 상반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복수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소속된 개인들은 양쪽 네트워크에서 교차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은 투표결정시기를 늦추는 등의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적 맥락에서 머츠는 교차적 네트워크 중간에 놓인 개인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 속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교차적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들이 활발한 정치참여에 나설 경우에는 한쪽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들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네트워크의 교차성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유대감과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Putnam 2000, 350-63 참조).

속의와 정치참여 사이의 모순적 관계에 대한 머츠의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중대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머츠의 연구(Mutz and Mondak 2006)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적 공론장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간의 대화 같은 전통적인 대면(對面) 대화를 상정하고 있다. 온라인 공론장이 정치적 소통의 주요 공론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머츠의 이론이 온라인 공론장,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소통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머츠(2006, 6) 본인 또한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머츠의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사회관계, 즉 가족, 혈연, 직장동료, 학연, 종교, 친구 등의 관계는 많은 경우 나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종의 환경에 가깝다. 개인은 능동적으로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다는,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지배적 의견에 소극적으로 순응 혹은 동조(conform)한다(Asch 1955; 1961; Bond and Smith 1996; Friedkin and Johnsen 1999).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 특히 소셜미디어에서의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네트워크는 대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구성된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네트워크 관계가 강한 교차성을 띄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미디어 사용자의 의지가 이미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교차성은 개인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머츠의 주장, 즉 네트워크 교차성이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가능성이 생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 소통의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스스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차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신을 그 가운데에 위치시킨다면, 이 개인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머츠의 논의가 갖는 두 측면을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검증해보려는 시도이다. 첫째, 머츠가 주장한 것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의 속의 수준 또한 네트워크 교차성이 커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볼 것이다. 즉,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다른 견해에 자신을 노출시킬 확률이 높을수록 속의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둘째, 이와 동시에 머츠 주장의 나머지 한 부분, 즉 네트워크 교차성이 클수록 정치참여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교차성이 머츠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여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것이다. 그 후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들의 조작화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의 작업 가설을 세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함의를 토론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는 순서로 논문을 구성한다.

II. 기존연구검토

1. 소셜미디어와 동종선호(Homophily)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미디어로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 인터넷이 민주주의 정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 회의론이 혼재했으며 그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동종선호(同種選好, homophily) 성향에 대한 인식이 놓여 있다.

에버릿 로저스와 딜립 바우믹(Rogers and Bhowmik 1970, 526)는 동종선호를 “신념, 가치, 교육, 사회적 지위 등의 특정한 속성이 비슷한 개인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안민호(2014, 115)는 또한 동종선호를 “사회적 지위나 직업, 성향이 비슷할수록 사람들이 서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상호작용하며 그래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향”이라고 약간 확장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동종선호와 대칭되는 개념은 이종선호(異種選好, heterophily)로, 다른 속성을 가진 개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정보사회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일찍부터 주장해온 바 있다. 특히,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쌍방향 접촉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것은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표적으로 그로스만(Grossman 1995)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가 그리스의 고전적 민주주의, 근대의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잇는 제3의 민주주의 형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저명한 미래학자들, 토플러(Toffler 1970; 1980), 네그로폰테(Negroponete 1995), 레인골드(Rheingold 1993; 2003; 2012) 등도 이러한 정보사회 낙관론에 일조한 바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인터넷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어 오던 소수의 의견이 드디어 다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발견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이종선호적 소통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TV나 신문 같은 대중 매체에서 외면 받아온 새롭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성이 2001; 2007; 조희정 외 2012).

반면 인터넷의 동종선호 경향에 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낙관론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이종선호적 소통 대신,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결속이 강화되는 이 동종선호 현상은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문제의 해결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으며(Page 2007), 집단극화를 강화하여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Sunstein 200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연결이 강화되고 그 결과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이 변화가능성이 사라지는 폐쇄적 공간이다(Bimber 1998; Bimber and Davis 2003; Kushin and Kitchener 2009).

헬버스탐과 나이트의 연구(Halberstam and Knight 2014)는 소셜미디어의 동종선호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미국인들이 트위터에 올린 50만 개의 트윗 내용을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내용을 가진 트윗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동질성이 있는 트윗이 같은 성향의 트위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속도 또한 반대의 경우에 비해 훨씬 빨랐다. 진보적인 트위터 사용자들이 선거와 관련되어 읽은 트윗의 90%는 민주당원이 작성한 것이었고,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읽은 선거관련 트윗의 90%는 공화당원이 보낸 것이었다. 즉, 소셜미디어 상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가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에 노출되는 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덕진과 김기훈의 연구(2011, 82)는 한국인들의 트위터 네트워크에서도 “동종교배(assortative mating) 같은 사회적 동학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의 국내 연구 중 김범수(2014)의 논문은 뉴미디어에서의 여론 형성에 롱테일 효과(long-tail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터넷의 동종선호 경향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롱테일 효과는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매출액의 상당수가 베스트셀러가 아닌 소수자의 취향에 맞는 책들에 의존한 다는 것에서 발전된 이론이다(Anderson 2006). 이 논문에 따르면, 뉴미디어에서 형성된 여론은 태도극화(attitude polarization)의 특징을 보이면서도(이상신 2014; Miller et al. 1993), 동시에 ‘쏠림’현상은 약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 기존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소수의견의 출구가 생겼으며, 이러한 롱테일의 뉴미디어 여론 시장은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태도극화), 특정의견에 여론이 빠르게 동조하지는 않는(쏠림 현상의 완화) 특징을 동시에 보인다(김범수 2014, 160).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동종선호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에는 여러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안민호(2014)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오프라인 소통의 경우보다 더 동종선호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관련한 한 연구(Colleoni et al. 2014)는 미국인들의 트위터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종선호 경향이 다르다는 주장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동종선호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화당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만 떼어 놓고 보면 이들의 동종선호 경향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소셜미디어와 정치참여

인터넷의 등장이 선거와 여론형성의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2014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우원애 2014), 이제 온라인 정치참여는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는 인터넷 연구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가 중요한 시민 참여의 통로로 자리잡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Mossberger et al. 2008; Oates et al. 2006). 최근에는 이른바 아랍 지역 국가들의 연쇄적인 민주화 운동, 일명 “아랍의 봄”에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들이 있었다(Lynch 2011). 다이아몬드(Diamond 2010, 70)는 인터넷이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부정을 고발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저항을 동원하고, 선거를 감시하고, 정부를 조사하고, 참여를 심화하고, 자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워드와 후세인(Howard and Hussain 2011)은 트위터 사용이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이 소셜미디어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아랍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튀니지에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았으며, 이집트에는 인터넷 이용자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참여로 이어지지 않던 대중의 불만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등장을 계

기로 본격적인 정치참여로 발전한 것이 아랍의 봄을 이끈 동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정치참여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대와 달리,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정치참여 사이에는 실제로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Bimber and Copeland 2011). 같은 맥락에서, 정치참여와 인터넷 사용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른 일곱 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불리안의 연구는 두 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계수가 평균 0.07에 불과하여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주장한다(Boulianne 2009).

머츠는 네트워크의 교차성이 정치참여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지만, 교차 네트워크의 개인들이 꼭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이훈과 동료들의 연구(Lee et al, 2013)에 따르면 교차적 정치대화(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강한 집단 내 동질성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이 만족될 때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조적으로 소셜미디어상에서 머츠가 주장한 네트워크 교차성과 정치참여의 길항적 관계를 발견한 연구도 존재한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토론과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Hampton et al, 2014)는 머츠가 주장한 네트워크 교차성과 소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상관관계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의 친구 혹은 팔로워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토론에 끼어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역으로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정치적 토론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한국의 연구사례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조성대(2013)는 한국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네트워크의 교차성을 네트워크의 규모, 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친구 비율, 네트워크에서의 정치적 이질성 세가지로 변수화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네트워크의 인적구성 차원에서 교차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이 강화되고 정치참여가 증가되는 반면, 온라인에서의 정치 정보 습득 및 숙의활동은 폐쇄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조성대 2013, 179-80). 이 연구에서는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2012년 총선에서 SNS의 역할을 연구한 이상신의 논문(2012, 104-106)에서 SNS 사용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데이터와 조작화, 그리고 가설

1. 데이터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모집단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이다. 2012년 2월 29일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리서치가 보유한 패널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19대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총 1004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응했으며, 이중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484명, SNS 비이용자는 520명이 표집되었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비율을 50%에 맞추어 표집했기 때문이나, 본 연구의 모집단은 소셜미디어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이므로, 아래의 통계 분석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종속변수

1) 숙의

이 연구에서는 추상적 개념인 온라인에서의 숙의를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계기로 바꾼 경험”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숙의민주주의 이론에서 숙의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이념에 상반되는 의견에도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합리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나 의견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다면 숙의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과 개방성, 그리고 이견에 대한 관용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의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1=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2=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3=종종 경험한다; 4=자주 경험한다), 전체 응답자의 숙의 평균은 2.49(표준편

〈표 1〉 온라인 정치참여의 측정과 분류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
정보적 참여	이메일이나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보자나 선거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나 공약 등을 찾아 본 적이 있다.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한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본 적이 있다.
숙의적 참여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한 적이 있다. 선거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친구나 가족, 아는 이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블로그나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선거나 정치에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투표에 참가한 적이 있다
행동적 참여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위한 온라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후보자에게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보낸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온라인 리본/배너 달기, 추모, 서명운동, 관련 글 올리기 등).

차 0.73)이었다.

2) 온라인 정치참여

응답자들의 온라인 정치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표 1〉에 정리된 10개의 문항을 묻고 각각의 문항을 이진변수(1=예; 0=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이 10개의 문항을 합하여 전체 온라인 정치참여 합산척도를 만드는 한편, 그 행위의 성격 별로 분류하여 세 개의 추가적인 하위 정치참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세 하위변수는 정보적 참여, 숙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이다(조성대 2013, 167). 여기서 정보적 참여는 온라인에서 주로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경험을 의미한다. 숙의적 참여는 온라인 상으로 자신이 찾은 정보를 지인·가족 등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참여는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정치참여의 단계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 혹은 정치적 이슈를 위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독립변수

1) 네트워크 교차성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이 기존에 속해 있던 사회적 집단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의 “다름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적·구조적 제약과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적 차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조성대 2013, 162). 네트워크 교차성 변수는 따라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기존의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로부터의 정보에 노출 시키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를 위해 SNS 상에서 교류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고 이를 10점 척도로 변수화 하였다. 이 변수에서 “기존에 이미 알던 사람들과만 SNS 상에서 교류”하고 있다면 1,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과만 SNS 친구”를 맺고 있다면 10점으로 측정하였고, 그 양 극단의 사이라면 중간의 한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SNS 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교육심리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자신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태도 및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상호 2009; 박웅기 외 2009; Bandura 1977). 정치학 영역에서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정치참여 및 투표행태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구자혁(2012; 2013)은 이 효능감 개념을 인터넷 정치참여에 적용, “집단형성 효능감”(group-forming efficacy)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집단형성 효능감은 “공감”(resonance)과 “집합자 행위자 형성”이라는 두 감정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한 개인이 자신과 느끼고 생각하는 타인과 집단을 발견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이 고독한 개인적 내면이 자기 자신보다 큰 어떤 것, 집합적 존재(corporate being)의 일부가 되어 공적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물질화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치, 사회세력으로 형성되어 나아간다는 감정과 지각을 지칭”한다.

구자혁(2012)은 이러한 집단형성 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문국현 지지자들의 정치 참여와 이 집단형성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서베이에서는 구자혁이 사용한 설문 도구를 일부 응용하여,

SNS 사용이 집단형성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하였다. 이 SNS 효능감 변수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후 그 값을 더한 합산 척도(summation scale)이다. 이 변수 구성에 사용된 다섯 개의 5점 척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SNS를 통해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SNS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 인사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3. SNS에서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4. 내 의견을 SNS에 올릴 때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SNS에서 나와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위의 다섯 가지 항목을 표준적인 5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 다섯 항목을 종합하여 만든 합산척도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81로, SNS 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인터넷 이용빈도

위의 두 독립변수, 네트워크 교차성과 SNS 효능감이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변수라면, 인터넷 이용빈도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척도이다. 이 인터넷 이용빈도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¹⁾ SNS 이용자의 평균 인터넷 이용빈도는 6.22였다. 이는 평균적인 SNS 이용자들이 하루 2~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SNS 비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빈도는 5.8로 약간 낮아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01$).

4. 통제변수

위의 세 가지 독립변수 외에, 정당일체감 및 이념, 그리고 정치관심도를 측정하는 정

1) 1=전혀 이용하지 않음; 2=거의 이용하지 않음; 3=일주일에 1~2일; 4=일주일에 3~4일; 5=매일 1시간 이하; 6=매일 2~3시간; 7=매일 3시간 이상

〈표 2〉 변수 일람

변수	조작화	평균	표준편차
숙의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계기로 기존 정치적 견해 변경 경험	2.50	0.73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행동 10가지 유형 합산척도	3.68	2.26
정보적 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하위변수	1.74	0.99
숙의적 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하위변수	1.30	1.14
행동적 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하위변수	0.64	0.69
네트워크 교차성	1=기존에 알던 사람들과만 SNS 친구; 10=새로운 사람들과만 SNS 친구	3.96	2.53
SNS 효능감	SNS를 통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태도. 5문항 합산척도	16.88	3.28
인터넷 이용빈도	1=전혀 이용하지 않음; 4=일주일에 3-4일; 7=매일 3시간 이상	6.22	0.98
새누리당	1=새누리당; 0=기타		
민주통합당	1=민주통합당; 0=기타		
이념	0=매우 진보; 5=중도; 10=매우 보수	4.54	2.06
정치관심도	1=전혀 없음; 4=매우 많음	3.20	0.78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2012년 기준 만연령	35.72	11.70
교육수준	1=초졸 이하; 3=고졸; 5=대학원 재학 이상	3.62	0.66
월소득	1=70만원 이하; 10=601만원 이상	6.64	2.19

치변수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또,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 이론에 따르면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의 기본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이 중에서 SNS 사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민영 2011; Norris 2001). 이에 따라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의 사회경제학적 배경변수가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5. 가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들은 크게 정치적 숙의 수준과 관련된 가설 및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가설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설들은 머츠의 숙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 교차성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숙의수준 관련 가설은 머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숙의 수준이 높은 현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온라인 정치참여 관련 가설들은 머츠의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네트워크 교차성이 온라인 정치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1) 숙의 수준 관련 가설

〈가설 1〉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숙의 수준이 높다.

2) 온라인 정치참여 관련 가설

〈가설 2〉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가 증가한다.

〈가설 2-1〉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정보적 참여가 증가한다.

〈가설 2-2〉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숙의적 참여가 증가한다.

〈가설 2-3〉 네트워크 교차성이 높을수록 행동적 참여가 증가한다.

IV. 분석

1. 숙의의 결정요인

아래 표에서는 숙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OLS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모형 1에서는 주요 독립변수를 제외한 정당일체감 및 이념, 정치관심도 등 정치변수와 통제 변수들만을 사용하였다. 모형 2에서는 네트워크 교차성과 SNS 효능감, 인터넷 이용빈도의 세 독립변수를 포함시켜서 모형 1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소셜미디어

〈표 3〉 속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SNS 효능감			0.03** (0.01)	0.13
네트워크 교차성			0.03* (0.01)	0.11
인터넷 이용빈도			-0.05 (0.03)	-0.07
새누리	0.14* (0.06)	0.09	0.11 (0.09)	0.07
민주통합당	0.12* (0.06)	0.08	0.06 (0.08)	0.04
이념	-0.02 (0.01)	-0.06	-0.03 (0.02)	-0.09
정치관심도	0.28*** (0.03)	0.29	0.18*** (0.04)	0.19
성별(남성)	-0.06 (0.05)	-0.04	0 (0.07)	0
연령	0 (0)	-0.03	0 (0)	0.04
교육수준	0.02 (0.04)	0.02	-0.01 (0.05)	-0.01
소득	0.01 (0.01)	0.04	0.02 (0.02)	0.05
	N=1004 R ² =0.1061 F=14.77***		N=484 R ² =0.1131 F=5.47***	

주: 상수는 생략하였음. *** $p < 0.001$ ** $p < 0.01$ * $p < 0.05$

를 사용하는 집단이지만, 이 사용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모형 1에서는 비사용자들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표 3〉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주요 온라인 행태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 1에서는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정치관심도가 속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 1의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양대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도 정치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행태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 2에서는 정당일체감 변수들의 효과가 사라진다. 대신 SNS 효능감과 네트워크 교차성 변수가 유의미하게 속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가 함께 포함된 모형 1에서는 기존의 양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대상(baseline)인 무당파 및 기타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속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효과는 다른 독립변수가 통제가 될 때 사라진다. 다시 말해 모형 1은 정당일체감이 확실하고 정치

〈표 4〉 정당일체감과 SNS 효능감, 네트워크 교차성 교차분석

정당일체감	SNS 효능감		네트워크 교차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새누리당	16.59	3.36	3.94	2.55	162
민주통합당	17.59	3.09	3.98	2.63	160
통합진보당	17.41	3.17	4.20	2.53	59
자유선진당	15.00	2.97	2.82	2.44	11
기타정당	18.50	2.33	5.38	2.39	8
무당파	15.82	3.29	3.82	2.28	84
	F=5.14***		F=1.11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얻은 정치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초에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접한 정치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예측은 모형 2와의 비교를 통해 기각된다.

모형 2는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활발한 SNS 속에서의 소통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소속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SNS 효능감), 그리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자본의 폭을 넓혀가는 사람들(네트워크 교차성)이 정치적 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가설 1〉에서 예측한 것과 합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정치관심도는 양쪽 모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과 SNS 효능감, 그리고 네트워크 교차성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분석하기 위해 〈표 4〉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교차분석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에 따른 네트워크 교차성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SNS 효능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확실한 경우에 SNS 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지지자들과 무당파층의 SNS 효능감을 t검정해보면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적 숙의 수준이 높았다기 보

다는, 이들의 상대적으로 조직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SNS 효능감을 높이고, 이것이 정치적 속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 무당파에 비해 SNS에서의 정치적 소통에 있어 좀 더 활발하고 일관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당일체감과 SNS 효능감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다.

온라인 행태 변수 및 정치변수를 제외하면 통제변수 중 속의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모형 중 어느 쪽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 속의수준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교육수준이나 연령 등도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SNS 효능감과 네트워크 교차성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변수들이다. 반면 SNS 사용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연령과 같은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은 이들의 속의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선거와 투표행태를 연구했던 콜롬비아 학파의 관점(Berelson et al. 1954; Lazarsfeld et al. 1968)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 온라인 행태 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터넷 이용빈도가 속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SNS 영향력을 분석한 이상신의 연구(2014)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신은 이 논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일관투표와 정당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인터넷을 주된 정치정보 획득 매체로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이용빈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정치정보가 상당한 수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인터넷 이용빈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 온라인 정치참여 회귀분석

〈표 5〉에서는 정보적 참여, 속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로 세분화한 온라인 정치참여 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세 가지 온라인 참여 행동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한 온라인 정치참여 또한 종속변수의 하나로 삽입하여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SNS 효능감과 네트워크 교차성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외는 정보적 참여

〈표 5〉 온라인 정치참여 회귀분석

	온라인 정치참여		정보적 참여		숙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SNS 효능감	0.16*** (0.03)	0.23	0.05*** (0.01)	0.15	0.08*** (0.02)	0.22	0.03*** (0.01)	0.16
네트워크 교차성	0.11** (0.04)	0.13	0.03 (0.02)	0.08	0.06** (0.02)	0.13	0.02* (0.01)	0.09
인터넷 이용빈도	0.03 (0.09)	0.01	0.04 (0.04)	0.04	-0.02 (0.05)	-0.02	0.01 (0.03)	0.01
새누리	-0.05 (0.25)	-0.01	0.07 (0.11)	0.03	-0.06 (0.13)	-0.03	-0.06 (0.08)	-0.04
민주통합당	-0.55* (0.22)	-0.12	-0.01 (0.1)	-0.01	-0.3* (0.12)	-0.12	-0.24*** (0.07)	-0.16
이념	-0.15** (0.05)	-0.14	-0.06*** (0.02)	-0.13	-0.03 (0.03)	-0.06	-0.05*** (0.02)	-0.16
정치관심도	0.83*** (0.13)	0.28	0.37*** (0.06)	0.29	0.29*** (0.07)	0.2	0.16*** (0.04)	0.18
성별(남성)	0.06 (0.18)	0.01	0.17* (0.08)	0.09	-0.05 (0.1)	-0.02	-0.06 (0.06)	-0.04
연령	0.02** (0.01)	0.12	0.01* (0)	0.09	0.01* (0)	0.11	0 (0)	0.07
교육수준	0.01 (0.14)	0	0.15 (0.06)	0.1	-0.11 (0.08)	-0.06	-0.03 (0.05)	-0.03
소득	0.08 (0.04)	0.08	0.03 (0.02)	0.06	0.05* (0.02)	0.09	0.01 (0.01)	0.03
	N=484 R ² =0.2658 F=15.53***		N=484 R ² =0.2387 F=13.45***		N=484 R ² =0.1808 F=9.47***		N=484 R ² =0.1401 F=6.99***	

주: 상수는 생략하였음. *** $p < 0.001$ ** $p < 0.01$ * $p < 0.05$

모형에서 네트워크 교차성이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련된 〈가설 2〉와 〈가설 2-2〉, 〈가설 2-3〉이 이 결과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설 2-1〉에서 네트워크 교차성이 정보적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것만 예외로 이 분석결과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

〈표 6〉 정당일체감별 온라인 정치참여

정당일체감	평균	표준편차	빈도
새누리당	3.77	2.30	162
민주통합당	3.63	2.07	160
통합진보당	4.92	2.31	59
자유선진당	3.64	2.16	11
기타 정당	4.75	2.05	8
무당파	2.63	2.05	84

F = 8.77***

주: *** $p < 0.001$

그러나 정보적 참여 모형에서도 네트워크 교차성 변수의 P 값은 0.067로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의 기준으로 주로 쓰이는 95%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SNS 사용과 관련된 두 독립변수가 모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SNS 관련 변수와 대조적으로, 인터넷 이용빈도는 이 분석에서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SNS 관련 변수들 외에 정치참여 변수들에 가장 일관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치관심도였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 형태의 온라인 정치참여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도 다른 독립변수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큰 편이었다.

정당일체감 변수 중에서는 민주통합당 이진변수가 정보적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형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변수는 정치참여 변수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정치참여가 새누리당이나 기타 정당 지지자들의 정치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정당일체감에서 야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참여가 저조했던 것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의 참여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참여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이념 변수의 경우에는 속의적 참여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참여 변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일체감과 이념 변수를 종합해서 분석하면,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이념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

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반면, 진보적 이념을 사 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정치참여를 했다는 것은 언뜻 이율배반적인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 6>의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정치참여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주요 정 당 중 통합진보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런 차이가 다른 통 제변수와 함께 더해졌을 때, 민주통합당 지지와 진보 이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온라 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양대 정당에만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보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변수 를 통제했을 때는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온라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는 것을 위의 OLS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보수정당이 더 이상 약자 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윤성이(2007, 21)는 이미 2007년 대선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우익 웹사이트 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2007년 대선 시점에 이르러 ‘인터넷은 곧 진보’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2002년 노사모의 등장으로 인터넷 이 선거운동의 새로운 총아로 등극한 이후(강원택 2004; 김용호 2004; 정연정 2004), 꾸준히 인터넷에서의 세력 확장을 추진해오던 새누리당의 전략이 이 시점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영향력은 정방향 —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참여에 적극적 — 이었다. 그 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적 참여에 적극적이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속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리스(Norris 2001)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이론을 을 통해 성별, 교육수준, 연 령, 소득 등의 인구학적 변수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일반화되기 이전까지 많은 국내외 연구들(김문조·김종길 2002; 박해광 2003; 이상신 외 2011; 조주은 외 2009; DiMaggio and Hargittai 2002; Eastin and LaRose 2000; Hargittai 2002; Kim and Jeong 2010; Mossberger et al.

〈표 7〉 세대별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정치참여		정보적 참여		숙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대	3.49	2.10	1.64	0.97	1.23	1.14	0.63	0.65	160
30대	3.31	2.07	1.72	0.97	1.05	1.09	0.54	0.62	123
40대	4.01	2.38	1.82	1.01	1.48	1.13	0.71	0.75	121
50대	4.14	2.51	1.86	1.05	1.59	1.15	0.69	0.77	80
	F=3.50*		F=1.25		F=5.03**		F=1.36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2003; Selhofer and Hüsing 2002)이 노리스의 주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해 왔다.

그런데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활발했다는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지금까지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흥미롭다. 실제로 세대별 정치참여 변수를 따로 계산해보면 〈표 7〉 같은 결과가 나온다. 전체적 온라인 정치참여에 가장 소극적인 것은 20대와 30대 응답자였으며, 40대와 50대 응답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세대별 정치참여의 차이를 정보적, 숙의적, 행동적 참여의 세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숙의적 참여만 95% 수준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뿐, 다른 형태의 참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온라인에서 정치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온라인 정당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정치 참여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정치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공유하고 정치적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 세대가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위의 표는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거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 한국 정치의 경향을 생각하면(송경재 2011; 정진민 2012; 정한울 2012; 허석재 2014),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보다 노령층이 투표율은 높지만 온라인에서의 참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거나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과대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온라인 조사의 한계로 응답자들의 연령이 최고 59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은 더 이상 정보격차에서의 연령간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의 징후 정도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맺음말

지금까지 숙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 교차성에 대한 머츠의 논의가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적 소통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해보았다. 2012년 총선 당시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머츠가 주장한 것과 같이 정치적 숙의의 수준에 네트워크 교차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용자들은 정치적 숙의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표 4〉).

그러나 머츠의 주장 중 좀 더 핵심에 가까운 것은 그 두 번째 부분, 즉 교차적 네트워크로부터 양쪽의 압력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적 참여와 대화, 토론 등에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나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달리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머츠의 예측과는 달리 네트워크 교차성이 활발한 온라인 정치참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앞 절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이 사실과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교차성은 정보적 참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참여, 즉 숙의적 참여 및 행동적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종합적 참여변수인 온라인 정치참여 변수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표 5〉).

개인의 경제적 지위, 연령, 학력, 거주지, 종교, 성별 등에 기초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많은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비가역적인 환경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온라인 네트워크, 특히 소셜미디어로 맺어진 네트워크는 애초에 그 기능을 디자인할 때부터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자발성의 공간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정치참여의 비용을 낮추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Shirky 2009; 2011), 같은 논리로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에 드는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높은 네트워크 교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소셜미디어가 네트워크 교차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연구의 결론이 소셜미디어가 네트워크의 교차성을 확대시켜 약화된 정치적 공론장(public sphere)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머츠가 지정한 숙의와 참여의 딜레마가 최소한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이 성격이 다른 네트워크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치참여적 행위의 빈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인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관심사와 지식을 지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은 이미 라인골드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에 주장했던 내용이다(Rheingold 1993). 이러한 낙관론은 주로 인터넷이 참여의 비용을 극적일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는 참여의 비용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차 네트워크에 위치한 개인들이 받는 교차 압력 또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 갖는 함의일 것이다. 조성대(2013, 161-2)는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오프라인과 달리 지리적 경계가 문제되지 않으며, 접속과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횡단력(traversability)이 존재하고, 또 정치적 공간과 비정치적 공간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소셜미디어가 머츠가 제기한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다. 앞 절의 분석 결과는 숙의와 참여의 딜레마가 최소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태도를 지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소셜미디어가 라인골드가 주장했던 것 같은 이상적인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선불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많은 회의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태도극화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지만, 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이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82.1%에 달하여, 사실상 성인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의 이용률은 전체 인구의 94.6%,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79.7%였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중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2.7%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비율은 99%와 97%로 거의 예외없이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이용률은 인터넷 이용자의 55.1%로, 역시 젊은 층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20대는 87.5%, 30대는 74%에 달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이런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인터넷의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속의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은 한국의 정치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교차적인 소통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일 것이다. 교차성을 잃은 소셜미디어와 폐쇄적 네트워크는 태도극화의 장으로 전락하여 사회 갈등의 증폭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일간베스트 등의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동종선호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민주주의적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다(김학준 2014; 윤보라 2013). 결국 소셜미디어 또한 소통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고일: 2014년 12월 30일

심사일: 2015년 1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9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0집 3호, 161-84.
- 구자혁. 2012. “가상화, 집단형성 효능감, 그리고 한국 포스트 민주화의 동학: 정치적 ‘소비

- 자'의 수평적 네트워킹과 아렌트적 '행위'의 공간, 주체의 부상." IT정치연구회 발표논문, 서울.
- _____. 2013. "현대성의 개성화, 탈분화 과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의 부상." 『사회과학논총』 15집, 27-56.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집 4호, 123-155.
- 김범수. 2014. "여론시장에서의 뉴미디어 효과: 롱테일 이론의 적용." 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용호. 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인가? 노사모 사례 연구." 정보기술과 정치·사회의 변화 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동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집 1호, 150-187.
- 박상호. 2009. "포털뉴스 이용동기가 인터넷 자기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냉소주의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집 5호, 153-75.
- 박용기·박윤정. 2009.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집 2호, 395-417.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 사회』 59집, 78-102.
- 송경재. 2007. "인터넷은 정치공론장이 될 수 있는가? 포털의 정치와 온라인 저널리즘."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09. "웹 2.0 정치 UCC와 전자민주주의: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담론201』 11집 4호, 63-91.
- _____. 2011.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7집 2호, 57-88.
- 안민호. 2014. "SNS는 얼마나 동종애적인가?" 『한국방송학보』 28집 5호, 111-149.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極化)." 『현상과 인식』 35집 3호, 39-58.
- 우원애. 2014.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당선되면 차기 총선 불출마." 『이데일리』(12월 29일).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진보평론』 57집 가을호, 33-56.
- 윤성이. 2001.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이상과 현실." 『사회이론』 20집, 37-61.
- _____. 2003. "16 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71-87.
- _____. 2007.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이상신.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19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제주.

- _____. 2014. “인터넷, 태도극화, 그리고 지방선거: 제 6회 지방선거의 투표행태 분석.” 『아태연구』 21집 4호, 273-305.
- 이상신·김한나. 2011. “전자투표와 정보격차: 디지털 활용성 격차가 전자투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5집 2호, 5-31.
-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언론정보연구』 48집 2호, 44-79.
-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언론정보연구』 48집 2호, 80-107.
- 장덕진·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 48집 11호, 59-86.
- 정연정. 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44집 2호, 237-259.
-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집 2호, 1-21.
- 정한울. 2012.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동아시아연구원 보고서.
- 조성대. 2013.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교차성과 정치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집 2호, 157-185.
- 조주은·이성일. 2009. “전자정부에서의 정보격차: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16호, 53-82.
- 조희정·박설아. 2012.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46집 1호, 113-139.
- 최명균·신동희·강성현. 201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통한 유유상종.” 『방송통신연구』 84집 가을호, 64-84.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SNS를 활용한 정치홍보 연구: 19대 총선사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데이터(비공개자료). 보고서 접근 경로: <http://download.kpf.or.kr/MediaPds/PVIJGFDMEDKZKZA.pdf>(검색일: 2014년 12월 1일).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규섭·박주용·이덕재·이혜림. 2013. “트위터 팔로잉 관계에 대한 대표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 검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0집 1호, 295-336.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13집 1호, 65-93.
- Anderson, Chris. 2006.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New York: Hyperion.
- Asch, Solomon E. 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3. No. 5,

- 31-5.
- _____. 196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Mary Henle, ed. *Documents of Gestalt Psychology*, 222-236.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ndura, Albert.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relson, Bernard, William N. McPhee, and Paul Felix Lazarsfeld.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Bimber, B. and L. Copeland. 2011. "Digital Media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ver Time in the US: Contingency and Ubiquity."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Conference. Reykjavik, Iceland.
- Bimber, Bruce.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 No. 1, 133-160.
- Bimber, Bruce A., and Richard Davis. 2003. *Campaigning Online: the Internet in U.S. Elec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Rod, and Peter B. Smith.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No. 1, 111-137.
- Boulianne, Shelley. 2009. "Does Internet Use Affect Engagement? A Meta-Analysis of Research." *Political Communication* 26. No. 2, 193-211.
- Colleoni, Elanor, Alessandro Rozza, and Adam Arvidsson. 2014.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64. No. 2, 317-332.
- Diamond, Larry. 2010. "Liberation Technology." *Journal of Democracy* 21. No. 3, 69-83.
- DiMaggio, Paul and Eszter Hargittai. 2002.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Chicago August 2001.
- Eastin, Matthew S. and Robert LaRose. 2000. "Internet Self-Efficacy and the Psychology of the Digital Divid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6. No. 1. Published online. doi: 10.1111/j.1083-6101.2000.tb00110.x(검색일 2015년 2월 10일).
- Friedkin, Noah E, and Eugene C Johnsen. 1999. "Social Influence Networks and Opinion Change." *Advances in Group Processes* 16. No. 1, 1-29.
- Grossman, Lawrence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Democracy in America*.

- New York: Viking.
- Gruzd, Anatoliy and Jeffrey Roy. 2014. "Investigating Political Polarization on Twitter: A Canadian Perspective." *Policy & Internet* 6. No. 1, 28-45.
- Halberstam, Yosh and Brian Knight. 2014. "Homophily, Group Size, and the Diffusion of Political Information in Social Networks: Evidence from Twitt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2068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ampton, Keith, Lee Rainie, Weixu Lu, Maria Dwyer, Inyoung Shin, and Kristen Purcell. 2014. "Social Media and the 'Spiral of Silence'."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 Hargittai, E.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First Monday* 7. No. 4. Published Online. doi : 10.5210/fm.v7i4.942(검색일 2015년 2월 10일).
- Howard, Philip N. and Muzammil M. Hussain. 2011. "The Role of Digital Media." *Journal of Democracy* 22. No. 3, 35-48.
- Katz, Elihu and Paul Felix Lazarsfeld.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Free.
- Kim, Andrew Eungi and Mi Kyeng Jeong. 2010. "Technological Diffusion, Internet Use and Digital Divide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41. No. 1, 31-52.
- Kushin, Matthew J. and Kelin Kitchener. 2009. "Getting Political on Social Network Sites: Exploring Online Political Discourse on Facebook." *First Monday* 14. No. 11, 1-16.
- Lazarsfeld, Paul Felix,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Hoon, Nojin Kwak, and Scott W. Campbell. 2013. "Hearing the Other Side Revisited: The Joint Workings of Cross-Cutting Discussion and Strong Tie Homogeneity in Facilitating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ommunication Research*. Published Online. doi: 10.1177/0093650213483824(검색일 2015년 2월 10일).
- Lynch, Marc. 2011. "After Egypt: The limits and Promise of Online Challenges to the Authoritarian Arab State." *Perspectives on Politics* 9. No. 2, 301-310.
- Miller, Arthur G., John W. McHoskey, Cynthia M. Bane, and Timothy G. Dowd. 1993. "The Attitude Polarization Phenomenon: Role of Response Measure, Attitude Extremity,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Reporte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64. No. 4, 561-574.
- Mossberger, Karen, Caroline J. Tolbert, and Mary Stansbury. 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ossberger, Karen., Caroline J. Tolbert, and Ramona S. McNeal. 2008.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Mutz, Diana C. 2002a.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No. 4, 838-855.
- _____. 2002b.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No. 1, 111-126.
- _____.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tz, Diana C. and Jeffery J. Mondak. 2006. "The Workplace as a Context for Cross-Cutting Political Discourse." *Journal of Politics* 68. No. 1, 140-155.
- Negroponte, Nicholas. 1995. *Being Digital*. New York: Knopf.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ates, Sarah, Diana Marie Owen, and Rachel Kay Gibson. 2006. *The Internet and Politics: Citizens, Voters and Activists*. London; New York: Routledge.
- Page, Scott E. 2007. *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Pub. Co.
- _____. 2003.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Basic Books.
- _____. 2012. *Net Smart: How to Thrive Online*. Cambridge, MA; London: MIT Press.
- Rogers, Everett M. and Dilip K. Bhowmik. 1970. "Homophily-Heterophily: Relational Concepts for Communicat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34. No. 4, 523-538.
- Selhofer, Hannes and Tobias Hüsing. 2002. "The Digital Divide Index: A Measure of Social Inequalities In The Adoption Of ICT." In S. Wrycza, *Proceedings of the 10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CIS 2002: Information Systems and the Future of the Digital Economy*, 1273-1286. Gdansk, Poland: ECIS.
- Shirky, Clay. 2009.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 Organizations*. New York: Penguin Books.
- Shirky, Clay. 2011. "The Political Power of Social Media." *Foreign Affairs* 90. No. 1, 28-41.
- Sunstein, Cass R.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igger, Nathaniel. 2013. "The Online Citizen: Is Social Media Changing Citizens' Beliefs About Democratic Values?" *Political Behavior* 35. No. 3, 589-603.
- Toffler, Alvin. 1970. *Future Shock*.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Morrow.
- Vitak, Jessica, Paul Zube, Andrew Smock, Caleb T. Carr, Nicole Ellison, and Cliff Lampe. 2011.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Social Networking* 14. No. 3, 107-114.

ABSTRACT

Social Media and Deliberative Democracy

Sang Sin Lee | Soongsil University

Mutz (2006) maintains that there exists a dilemma between deliber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study examines two aspects of Mutz's theory with the environment of social media. First,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as Mutz expects, the levels of deliberation on social media network will be enhanced as the levels of cross-cutting network increase. Second, it also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individuals with cross-cutting network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alysis of survey data from 2012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shows that cross-cutting networks d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deliberation. Contrary to Mutz's expectation, however, the social media users with cross-cutting networks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various forms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Keywords: SNS efficacy, social media, deliberative democracy, cross-cutting network, homophily, on-line participation